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 1(1)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시련과 아픔, 눈물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인간 삶에서 시련과 아픔이 지닌 의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적 화자의 개인적 성찰과 깨달음이 ‘그늘’과 ‘눈물’이라는 상징적 시어로 형상화되었으며, 작가 정호승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 감상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의 감상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1. 윗글이 속한 문학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에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③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④ 반복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⑤ 화자의 주관적 감정과 사상을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전달한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아름답다고 여긴다.
- ② ‘눈물’과 ‘그늘’의 상징을 통해 시련과 아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 ④ 기쁨과 사랑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 ⑤ ‘햇빛’과 ‘기쁨’을 긍정적 의미로만 사용하여 삶의 밝은 면만 강조하고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 ③ ㉠은 시련과 아픔을, ㉡은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④ ㉠은 슬픔과 시련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기

쁨과 행복을 상징한다.

- ⑤ ㉠은 화자가 감내한 고통을, ㉡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희생을 의미한다.

4. ㉠에 담긴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생에서 밝음과 어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 ②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 ④ 시련과 고통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 ⑤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5. ㉡와 같은 심상이 사용된 시구가 아닌 것은?

- ①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②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③ 고요한 강물 위로 은빛 달빛이 흐른다
- ④ 사랑은 눈부신 햇살 아래 붉게 피어난다
- ⑤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6. <보기>는 윗글의 시인을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생은 고통입니다.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 살면서 목말라하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지요.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렇다고 물속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① ‘나무 그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의 의미로 쓰였군.
- ② ‘눈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군.
- ③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군.
- ④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하는군.
- 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

7.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아픔을 함께 하자는 진지한 권유적 어조
- ② 삶의 슬픔과 고통을 비꼬는 해학적 어조
- ③ 시련과 눈물을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적 어조
- ④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적 어조
- ⑤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낙천적 어조

8. 윗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 중 그 성격이 나머지 와 다른 것은?

- ① 시련과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
- ② 슬픔과 눈물을 부정하는 사람
- ③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 있는 사람
- ④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
- 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

9. <보기>에서 고려한 맥락으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를 읽고 우리 사회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떠올랐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① 작가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작품의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
- ② 이 글을 읽고 나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 ③ 해당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조사하니 작가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어.
- ④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는 요즘 상황과 연관 지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
- 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어.

10.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중 부정을 활용해 화자의 신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삶의 고통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 운율감과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상반된 시어를 대비시켜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격정적이고 강한 어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1~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열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 윤하 작사, 「사건의 지평선」에서

(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굵이굵이 퍼리랴
-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복적 문장 구조를 활용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다)와 달리 대조적 시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과학적 개념을 일상적 이별의 감정과 연결해 표현하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비물질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나)는 (다)와 달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12. (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에 해당하는 사람은?

1연		2연
그들이 없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A]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 ①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
- ②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 ③ 슬픔과 고통을 통해 타인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 ④ 눈물과 시련을 통해 기쁨의 가치를 아는 사람
- 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윗글은 서정 갈래이다. 서술자가 인물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③, ④, ⑤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 적절하다.

2. 정답 ⑤

‘햇빛’과 ‘기쁨’은 ‘그늘’과 ‘눈물’을 통해 더욱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으로 밝은 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② ‘눈물’과 ‘그늘’을 통해 시련과 아픔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시의 핵심 주제이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적절하다.

④ 기쁨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3. 정답 ③

㉠은 시련과 아픔을 의미하고, ㉡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과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시련과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하며,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는 구분되므로 부적절하다.

④ ㉡은 기쁨이나 행복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연민과 공감에 가깝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⑤ ㉡은 화자의 자기희생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태도를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4. 정답 ②

㉢는 ‘그늘’과 같이 슬픔과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 낸 사람이야말로 ‘햇빛’과 같은 참된 삶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②가 적절하다.

① 인생에서 밝음과 어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③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과 고통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은 이 작품과 관련이 없다.

⑤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⑤

㉣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된 시구이다. ⑤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된 시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시각적 심상이 사용된 시구이므로 적절하다.

6. 정답 ③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외면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나무 그늘’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은 고통과 시련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고통 없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④

화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내면의 성찰과 가치관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하므로 적절하다.

① 이 작품에서 권유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에서 고통을 비꼬는 해학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에서 강한 의지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에서 낙천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8. 정답 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 ① 시련과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로 부정적이다.
- ② 슬픔과 눈물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 부정적이다.
- ③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 있는 사람도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부정적 인물이다.
- ④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 역시 화자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부정적이다.

9. 정답 ④

<보기>는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을 떠올린 것으로 보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한 것은 ④이다.

- ①, ③ 작가 맥락을 고려한 감상이다.
- ② 독자 맥락을 고려한 감상이다.
- ⑤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만을 고려한 감상이다.

10. 정답 ⑤

화자는 조용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걱정적이고 강한 어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중 부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 ②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 ③ 1연과 2연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 운율감과 구조적 통일성을 형성하므로 적절하다.
- ④ ‘그늘-햇빛’, ‘눈물-기쁨’과 같은 대조적 시어를 활용해 화자가 지닌 삶의 가치관을 부각하므로 적절하다.

11. 정답 ⑤

(나)는 ‘아스라이’, ‘반짝인’, ‘열어져’와 같은 단어, (다)는 ‘서리서리’, ‘굽이굽이’ 등 음성상징어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 ① (가)에서는 ‘나는 ~을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반복적 문장 구조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지만, (나)는 반복적인 문장 구조는 없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는 ‘햇빛-그늘’, ‘기쁨-눈물’과 같은 대조적 시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각하지만, (다)는 삶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과학적 개념을 이별의 감정과 연결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비물질적인 시간을 구체적 행위로 형상화하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①

시련과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A]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②, ③, ④, 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